

2014년부터 새로운 입시정책 준비

LD학부 신설 및 광역단위 모집예정

우리학교가 2014년부터 고급 외교관 육성을 위한 LD(Language&Diplomacy)학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LD학부는 고급 외교관 및 고위 공직자 양성을 목표로 한 과정이며 정원은 42명이다. 해당학부에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은 국립외교원 입학에 위한 실무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입학생들에게는 △재학기간 장학금 지원 △국제지역대학원 및 통번역대학원 지원시설과정 학비 면제 △통번역대학원 필기 입학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LD학부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재학 기간동안 국립외교원 입학시험 혹은 국가고시에 한번 이상 응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인 2014년부터 우리학교의 신입생 모집방식도 대대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모집단위의 광역화 및 전공예약제를 실시하는 단과대학은 서울배움터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배움터 인문대학으로 총 4개이다. 단, 사회과학대의 경우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를 제외한 정치외교학과와 행정학과만 해당된다.

선발된 학생들 중, 서울배움터 3개의 단과대학은 60% 글로벌배움터 인문대학은 50%의 학생이 전공예약제로 선발된다. 나머지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전공예약제로 선발된 신입생들은 1학기 이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어대학은 2014년부터 중국언어문화학과와 중국외교통상학부로 두 개의 모집단위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중국어



단과대학	전공예약제 실시학과	전공예약 비율
서양어대학	프랑스어, 독일어, 노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스칸디나비아어	각 학과별(60%) 수시모집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이란어, 몽골어	각 학과별(60%) 수시모집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제외	각 학과별(60%) 수시모집
인문대학	철학, 사학, 언어인식학과	각 학과별(50%) 수시모집

*나머지 인원은 정시에서 광역모집하되, 전공예약은 아님

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중국어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언어문화학부는 언어와 문화 문학 영역에 중점을 두며 중국외교통상학부는 국립외교원과 국내외 주요기업의 중국 외교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입학정원

은 중국언어문화학부가 58명, 중국외교통상학부가 52명이다.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해 신입생들의 전공 선택의 폭과 기회를 넓혀 학생들에게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서울배움터학생회

보궐선거 진행

외대's 캔들, 그들의 공약은

지난 해 12월에 있었던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후 이번 해 보궐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 당선으로 출마한 선거운동본부 이름은 <외대's 캔들>이다. 선거운동본부는 “외대의 캔들(candle)이 돼 우리학교를 환히 밝히고 싶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제유발이 아니라 ‘당당한 폭로’라는 의미의 ‘스캔들’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 스캔들의 주인공은 총학생회장 후보 조봉현(사범·영교 09)과 부총학생회장 후보 권소정(상경·국통 10)이다. 조봉현 정 후보는 2009년 학교에 입학해 2011년부터 차근차근 학생회 활동을 시작했다. 영어교육학과 학생회 집행부원에서 출발해 지난 해 사범대학 학생회장을 맡았다. 이어 이번 해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거쳐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또 그는 사범대 노래패 패장과 외대 노래패 협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 봄대동제에서 외대문예한마당 연출자로 활동했다. 그의 이력 중 특이한 것은 수험서 집필이다.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 3회 연속 만점을 받은 그는 「조봉의 외국어의 기술」이라는 수험서를 집필한 바 있다.

조봉현 정 후보의 파트너인 부총학생회장 후보 권소정양은 새내기 시절 제 45대 총학생회 <나비효과> 선거운동본부에서 일했다. 지난해에는 상경대학 부학생회장을 맡았다.

외대스캔들이 학생회 운영구조와 관련해 내세운 정책들은 ‘쓸데없는 건 버리고 필요한 것을 살려 정리’다. 조봉현 정 후보는 “여학생위원회의 경우 과거만큼의 교내 성폭력 문제가 거의 없어 현재 이름만 남은 상태”라며 “외대발전학

생추진위원회 역시 과거만큼의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개편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를 없애는 한편 일반 학생이 직접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총투표나 학우소환제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엄격한 재정투명화를 내세웠다. “중증부터 시작해 현재 거의 감시되지 않는 학과 단위까지 재정 감사위원회를 살리겠다”고 한 것. 뿐만 아니라 “지금껏 총학생회에서 거의 개입한 적 없는 학과 학생회비까지 감사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학사제도에 관해서는 △EU전공이나 Brics전공과 같은 연계전공의 사무실 개설 △이중전공 수요에 따른 공급량 조절 △양 배움터 간 이중전공 문제 확실히 하기 등을 내세웠다. 여기서 ‘이중전공 수요에 따른 공급량 조절’이란 교수수, 강의 수 등을 이중전공자 수에 적절한 양으로 조절하겠다는 이야기다. 조봉현 정 후보는 “만약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소정 부후보는 “화려한 공약이 없어 죄송하다. 우리의 목적이 기억에 남는 학생회가 아니라 학생들이 편안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 기본에 더 집중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조봉현 정 후보는 “누구나 쉽게 말 걸 수 있는 만만한 학생회가 되고 싶다. 학생회실 문을 닫아 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여 전했다.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3면에 서울배움터 보궐선거, 계속>

동원육영회 전 이사장 이숙경 여사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 설립자故 김흥배 박사의 미망인 이숙경 여사가 이번 달 27일(목) 오후 9시 22분에 향년 94세로 별세했다.故 이숙경 여사는 동원육영회 前 이사장으로 지내며 학교 초기 설립과 발전에 기여를 해 그녀의 별세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고인의 분향소는 서울배움터 오바마홀 국

제회의실에, 글로벌배움터는 세향관에 마련되었다. 고인의 영결식은 31일(일) 오전 11시에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 세향관에서 진행된다.

유족으로는 △오성흥업주식회사 사장인 며느리 김혜순 △오성흥업주식회사의 부장 김경수 손자와 손녀 △김건희 △김선희 △현 동

원육영회 이사인 고인의 조카 김종철이 있다. 문나윤 기자 84beginning@hufs.ac.kr

이숙경 여사(향년 94세)

동원육영회 설립자故 김흥배 박사 미망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재직 : 1986.6~1998.4.11

부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前 이사장 이숙경 여사 별세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 설립자故 김흥배 박사의 부인 이숙경 여사가 이번 달 27일(목) 오후 9시 22분에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안실 1호이다. 분향소는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 글로벌배움터 세향관에 각각 따로 마련된다. 고인의 영결식은 31일(일) 오전 11시에 글로벌배움터 세향관에서 진행된다.



빈 의자

내면 끝인 과회비?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를 막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과회비를 걷는다. 과회비는 각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비이기 때문에 과의 규모 혹은 과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에 따라 금액의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걷는 과회비는 대개 학과의 체육대회, 학술대회 등 학과 행사에 쓰인다. 대부분의 과회비 금액은 적게는 대략 10만원선에서 많게는 30만원선까지 선으로 알려졌다. 본지의 조사결과 우리학교의 경우도 이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과회비를 내는 신입생들의 경우, 내야하는 과회비의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식 하면서도 과회비의 사용내역에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학생들의 경우 과회비를 내라고 해서 내는 것에서 그치고 만다. 심지어 일부신입생들은 이미 낸 과회비인데 사용내역을 굳이 알 필요가 있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과회비가 어떤 근거에서 그 금

액에 책정됐는지, 학생들로부터 다 걷는 과회비는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에 이번 외대학보 958호 심층보도면에서는 우리학교 각 과들의 과회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보도하기로 했다. 우선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 배움터 각 과별로 과회장들 및 단과대장들에게 각각 해당과와 과회비 금액을 조사했다. 이후 조사한 과회비의 평균치를 내어 각 단과별로 비교해 현재 우리학교의 대략적인 과회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과에서 걷는 과회비의 금액이 합당한 것인지 △과회비를 내고있는 일반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단과 학생회의 과회비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조사해 이를 기사화했다.

▲과회비를 심층기획으로 기사화하면서 초점을 두고 싶은 점은 ‘과회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다. 우리학보가 학생들로 하여금 과회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우선 우리의 관심의 유무가 과 집행부 및 학생들의 투명하고 건설적인 예산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견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굳이 하나 하나 예산목목을 따지지는 않더라도 학생들이 관심이 갖고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 학생회들을 향한 견제로 기능하는 것이다. 또한 과회비가 과의 자치활동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만큼 단순한 납부 그 이상을 넘어서는 관심은 한 명의 학생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같다.

▲해마다 이맘 때면 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에서 과회비에 관한 뉴스가 종종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공금의 과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학생들에게도 잘못은 있다. 그러나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과회비를 내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과회비를 보다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홍규원 부장

국·부장 고정칼럼

학내 브리핑

수강신청 취소 잊지 마세요!

양 배움터 학부생은 다음 달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수강신청 취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학교 홈페이지 Hot Link의 수강취소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4학년을 제외한 학년은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4학년은 최소 1학점 이상을 수강하면 된다.

매경 TEST 연습해 보세요

서울배움터에서 국가공인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인 매경 TEST(MK Test of Economic & Strategic business Thinking)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모의고사는 이번 학기에 총 4회 실시되며 각 회 차 별로 매경 TEST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면 된다. 재학생과 휴학생에게 선착순으로 신청 받고 응시비용은 무료다. 장소는 기존에 공지된 사회과 학관 303호에서 70여명이 수용 가능한 506호로 변경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력개발센터 (02)2173-2144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학기 매경 TEST 모의고사 일정

2회	3회	4회
4월 30일(화)	5월 21일(화)	6월 25일(화)

이번 해 개편된 학제

우리학교 이사회가 행정기관과 관련한 학제 개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연수나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다루는 ‘대외협력처’의 명칭이 ‘국제교류처’로 바뀐다. 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팀과 발전협력팀이 속해있다. 또한 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지원처에 속한 ‘정보통신팀’이 서울배움터의 경우 ‘IT개발팀’과 ‘IT인프라팀’으로 나뉘져 개편됐다. 따라서 기존 서울배움터와 글로벌배움터 같이 운영됐던 정보통신팀은 이제 글로벌배움터에서만 운영된다. 개편 사항은 이번 해부터 적용된다.

양배움터 도서관 시상식 ‘책의 벗은 사람이다’

◆ 신춘문에 준비하는 다독자, 군대에서도 틈틈이 공부한 모의토익 고득점자

“제 목표는 신춘문예로 등단하는 것이예요” 대출권수 170권으로 이번 학기 다독상 1등을 차지한 이주성(글경·경영 08)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울배움터 도서관에서 주최한 매 학기 최대 대출자를 선정하는 다독상과 TOEIC/TOEFL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자 시상식은 올해로 9년째다. 이번 달 20일(수) 열린 시상식은 오명근 서울배움터 도서관장의 축하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학기 다독상 수상자는 총 8명으로 이주성(글경·경영 08)군이 1등상을 수상했으며 2등상은 △박현진(사회·행정 04)군 △김주희(사회·정의 10)양 △설동별(글경·경영 07)군 △김성구(영어·영문 08)군 △이상아(글경·경영 07)양 △이태운(사범·프교 07)군 △배경주(사범·영교 10)양이 수상했다. 이주성군은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에 도전하기 위해 문학작품을 많이 빌려

읽었는데 다독상까지 타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TOEIC/TOEFL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상에서는 이진욱(국제 10)군이 965점으로 1등상을 수상했다. “도서관에 무료 모의 토익/토플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군대에 있을 때 알았는데, 독학해서 얻은 결과라 더욱 뿌듯하다”며 “모의테스트를 통해 시험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2등상은 △강다흔(사범·영교 10)양 △구서영(영어·영어 08)양 △임혜민(서양어·노어 10)양 △이혜지(상경·국통 12)양이 수상했다. 다독상과 TOEIC/TOEFL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상 1등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문화상품권 20만원, 2등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만원이 시상됐다.

오명근 서울배움터 도서관장은 이날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며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도서관이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학교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글로벌배움터, 다독에 외국어 교재와 전공서적도 한몫해

이번 달 20일(수) 글로벌배움터 도서관장실에서 다독상 시상식이 있었다. 지난 해 9월부터 지난 달 28일(목)까지의 대출횟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수상자는 △182권을 빌린 안지민(경상·국제경영 09)양 △김해미(동유럽·폴란드어 09)양 △정지준(통번역·영어 12)군 △강석원(자연·환경 12)군 △윤광주(공과·디지털정보 07)군 △박재석(인문·철학 11)군 △손희영(자연·전자물리 11)양 △서준원(인문·철학 11)군으로 모두 8명이다.

1등은 20만원, 2등은 10만원의 부상을 받았으며 모두 1년 동안 대출한도를 7권에서 12권으로 늘릴 수 있는 특전을 얻었다. 수상자 안지민양은 “지난 학기에는 영어교재와 자격증 시험도서를 많이 빌렸다”며 “이 상을 받아 기쁘지만 다음번엔

참고한 책보다 읽은 책이 많아서 이상을 받고 싶다”는 소감을 말했다. 박재석군은 “철학도서인 100년대의 책을 주로 읽었고 철학자가 아닌 일반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강유원 교수의 <인문고전강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달 19일(화) 한국정적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500명을 조사한 결과 50%정도가 한달 평균 독서량이 1권 이하로 나타났다. 또 도서관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는 소설과 인문학 도서라고 전했다. 이에 김상현 도서관학술팀장은 “소설은 여전히 학생들이 많이 빌리는 책 분야이지만 최근 우리학교 도서관에서는 FLEX를 포함한 외국어 교재와 전공서적 및 역사도서의 대출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학교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이북(e-book)을 빌려볼 수도 있는데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며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정·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새로 오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2013학년도 1학기 신규 교원들이 임용됐다. 서울배움터에는 6명의 내국인 교수와 18명의 외국인 교수 총

24명의 교수가 새로 부임해 제자들의 학문 수학을 도울 예정이다. 글로벌배움터 교단에 서게 될 교수는 내

국인 교수 7명, 외국인 교수 11명의 총 18명이다. 한편 박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

수로, 김태석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됐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만평

김경보 7

20대 결산
최고...

이번 달 저축내역

헬스장	-80,000
영어학원	-200,000
교재비	-50,000

남은돈

교조족...

인일 회계법인

대표회계사 허 완

인천시 중구 사동 13-5

Tel. (032) 764-4414
Fax. (032) 764-4413

 박진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 석좌교수	 김태석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 초빙교수	 권익수 영어대학 영어학과 조교수	 임소라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조교수	 최은경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조교수
 박노근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양승관 교육대학원 스페인어교육전공 조교수	 박소연 통번역대학원 한서과 조교수	 Douglas Maxwell Watson 영어대학 영어학과 조교수	 Matthew Brinton Tildesley 영어대학 영문학과 조교수
 Guillaume Barresi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조교수	 Juan Lucas Onieva López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조교수	 Kritsana Sombat 동양어대학 태국어과 조교수	 Lu, Yong Lin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교수	 Wu, Xiu Cheng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교수
 Yin, Ji Ming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교수	 Mak, Yan Yan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조교수	 Shubhangi Shikant Gokhale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Darren Bean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Rebecca Neh Delancey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Deborah Marie Kim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Daniel Adam Deacon 실용외국어위원회 조교수	 Lonnie John Ray Edge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조교수	 Jeanne Ashley Beck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조교수	 Liu, Wen Xin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부 조교수
 Andrea Lazarow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김지현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조교수	 박기봉 경상대학 국제지역학과 조교수	 박정경 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부 조교수	 박정호 동유럽대학 우크라이나어과 조교수
 이태형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조교수	 이항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조교수	 이현경 통번역대학 이탈리아어통번역 학과 조교수	 Agatha Maia Pereira 국제지역대학 브라질학과 조교수	 Aminuddin Ram 국제지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교수
 Eden Emilee Gillott 외국어교육센터 조교수	 Fazilah Binti Husin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조교수	 Henrique Goncalves Teixeira 국제지역대학 브라질학과 조교수	 Jeffrey Scott Owen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조교수	 Li Baolong 통번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조교수
 Pornwipa Chaisomkhun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부교수	 Terrill McLain 외국어교육센터 조교수	 Thairatana Surasith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부교수	 Xue Caide 통번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싱그러운 봄처럼 찾아온 동아리박람회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밀어주는 동아리들의 향연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서는 이번 달 13일(수)과 14일(목), 이틀에 걸쳐 동아리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카펠라 동아리 하울 △사진동아리 앵글스 △연극동아리 외대연극회를 비롯해 총 64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이날 동아리박람회에서는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에서 나눠주는 스티커북을 받아 각 동아리 부스를 다니며 설명을 듣고 난 후 스티커를 받는식의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스티커를 42개 이상 모아 동연에 제출하면 △팀블러 △문화상품권 △맘스터치 상품권 △아웃백 이용권을 상품으로 지급했다.

동아리 부스에서 설명을 들던 새내기 김수현(사범·독고 13군)은 “우리학교 동아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좋다”며 “하고 싶은 동아리가 많지만 활동기간이 겹칠 것 같아 망설였는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행사를 총괄한 정희웅(사범·한교 10 서울배움터 동연장)은 “동아리박람회는 새내기들에게 각 동아리의 위상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새내기들이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기획돼 왔다”고 말했다.

◆푸짐한 경품, 다양한 체험거리...다채로운 동아리박람회

“외대인이라면 세계를 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젊은 패기를 가져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유일 대학 자전거 해외 탐방 동아리인 만리행의 이윤지(국제지역·아프리카 12양) 동아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번 달 21일(목)에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에서 있었던 동아리박람회에서는 새로운 부원 모집을 위한 동아리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동아리박람회는 학생회관 건물 각 층에 위치한 동아리방(이하 동방)에 방문해 설명을 듣고 도장을 받아오면 응모권을 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장은 △지하와 2층을 합해 2개 △3층 2개 △4층 2개로 총 6개였으며 응모권 상품으로는 △1등 노트북 △2등 태블릿 PC △3등 스타벅스 텀블러가 제공됐다.

기독교 동아리 IVF의 부원인 이여진(자연·수학 10양)은 “더 많은 학생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게 지난 2011년 여름방학 때 모든 동아리원들이 함께 내부 공사와 인테리어를 실시했다”며 “또한 직접 원두를 사서 로스팅부터 핸드드립까지 배워 손수 만든 커피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족무예 동아리 활터의 동방에서 활을 쏘고 있던 새내기 이경수(자연·환경 13군)은 “어떤 동아리에 가입해볼까 고민하던 차에 동아리박람회 문자를 받고 찾아오게 됐다”며 “처음 활을 쏘았는데 새롭고 재밌었다”고 전했다.

박준수(공과·전자 09 글로벌배움터 동연장)는 “요즘에는 스펙이나 취업에 밀려 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기도 한데 동아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경력이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민지·양재상 기자 86hufspress@hufs.ac.kr



▲서울배움터 기타동아리 취현의 부원들이 국제학사 앞에서 즉석공연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배움터 야구동아리 UNION의 박상진(통번역·영어 12군)과 한석호(인문·철학 13군)이 동아리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글로벌배움터 민족무예동아리 활터에서 활 쏘기 체험을 하고 있는 이경수군. 이 군은 과연 한번만에 과녁을 맞출 수 있을까.

서울배움터 학생회 빈 자리 메꿔지나

현재 서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3월 22일(금) 기준) 선거운동을 하는 곳은 총학생회를 비롯해 △서양어대학 △일본어대학 △영어대학이다. 이 4개 선거 모두 단선이다. 또한 동양어대학과 상경대학은 후보자 부재로 인해 선거가 무산됐다.

이에 동양어대학은 1년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갈 예정이다. 현재 비대위장을 맡은 이란어과 회장 공대현(동양어·이란어 12군)은 “비대위 체제라 동대학생들의 소속감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양어대 울동패를 만들 계획”이라 말했다. 또한 “현재 동양어대가 맞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광역화”라

며 “학과 회장들로 이뤄진 소위원회를 꾸려 교수님들과 의견을 계속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상경대의 경우 단과대학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비대위 존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 부터

현재까지 비대위장을 맡은 이자용(상경·경제 12 경제학과) 회장은 “학생들이 학생회 없는 단대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비대위에서 많이 애쓰겠다”고 전했다.

임재운 기자 86healing@hufs.ac.kr

서울배움터 단과대학 보궐선거일정

단과대학	후보	선거운동기간	선거일
서양어대학	정 김무송(서양어·네덜란드어 09) 부 박수영(서양어·노어 12)	3월 13일(수)~26일(화)	3월 27일(수)~28일(목)
일본어대학	오석진(일본·일본 12)	3월 14일(목)~20일(수)	3월 21일(목)~22일(금)
영어대학	강유내(영어·영어 11)	3월 25일(월)~4월 2일(화)	4월 3일(수)~4월 4일(목)

교수협의회, 새로운 회장단 평의원 선출

우리학교 교수협의회 제18대 회장단이 선출됐다. 교수협의회 회장단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부총무 1인 △감사 2인의 7인으로 구성된다. 지난 달 18일(월) 개최된 교수협의회 회의에서 박용구 서울배움터 일본학부 교수가 91.7%의 득표율로 회장에 선출됐다. 부회장으로는 조문환 글로벌배움터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교수와 유달승 서울배움터 이란어과 교수가 뽑혔다. 총무에는 서울배움터 경영학부의 박병일 교수가, 부총무로는 글로벌배움터 폴란드어과 최성은 교수가 지명됐다. 한경민 글로벌배움터 헝가리어과 교수와 김신 서울배움터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감사로 선출됐다.

교수협의회는 회원 교수들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학내 민주화 및 자율화 등을 추구해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내 단체다. 또한 총장 후보 선출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이번 해에는 특히 총장 선거가 예정돼 있기에 더욱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박용구 제18대 교수협의회 회장 당선인은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하반기에 있을 총장 후보 선출을 공정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협의회 18대 회장단 선거와 더불어 2013학년도 대학평의회¹⁾ 교수 대표 선출도 있었다. 교수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총 5명의 교수가 평의원으로 추천됐다. 이번 해 교수대표 평의원은 박용구 일본학부 교수, 권원순 경제학부 교수, 김성복 디지털정보공학과 교수, 김중화 경영학부 교수, 최용호 프랑스학과 교수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각주

1) 대학평의회는 △교수 5인(교수협의회 선출) △학생대표 2인(서울배움터, 글로벌배움터 각 1인) △직원대표 2인 △동문대표 1인 △기타 학교 발전 기여자 1인(총장 위촉) 총 11명으로 구성돼 학사 운영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3학년도 후기 석사·박사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3학년도 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특별전형	4.8(월)~4.12(금)	4.27(토) 10:00	5.9(목) 14:00	5.13(월)~5.20(월)
일반전형	5.10(금)~5.16(목)	6.1(토) 10:00	6.13(목) 14:00	6.17(월)~6.21(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8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8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 1) 석사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3.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5.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HUF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 학교근로조교, 재외동포재단, 학생회임원, 교학처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재단, 기업체 및 단체 등)
-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가능
- 다. 대학원생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라.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이유있는 과회비

책정 근거와 논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자치활동은 대학생들의 꽃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학생구성원의 친목도모는 물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런 학생자치문화에 얼룩이 지고 있다. 학과별 자체적으로 걷는 학과 학생회비(이하 과회비) 때문이다. 자치활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현재 과회비 징수 및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과회비에 대한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번 달 11일(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마침내 ‘과도한 학과회비 징수 등 학생회 활동 관련 협조 요청’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학교의 과회비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앞으로 어떤 지침을 제시할지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회비, 논란의 중심에 서다

신입생들은 입학 당시 등록금 및 입학금과 함께 총학생회 자치회비를 선택적으로 납부한다. 각 학과에서는 학생회 운영을 위해 신입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의 자치회비를 별도로 걷는다. 과회비는 학기 초 많은 비용이 드는 신입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안훈영(사회·정외 13)군은 “학교의 지원금으로만 학생회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과회비는 꼭 필요하다”며 “하지만 과도한 액수의 과회비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필요이상의 회비를 걷어 유용(流用)한 모 학과의 사례를 들었다. 과다한 액수의 과회비, 재정의 투명성 등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는 종종 신입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는다.

교과부의 이번 공문에 따르면 △과도한 과회비 책정 △구체적인 예산안을 밝히지 않은 통보 △4년 치 회비를 한 번에 걷는 것 △투명한 회계집행 여부 등이 이번 논란이 되고 있다. 회계운영이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4년 치 과회비를 한 번에 걷거나 이를 1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외에도 중도 자퇴, 편입 등에 따른 환급처리 문제 등의 논란거리가 있다. 서양어대학의 한 학생은(12)은 “재수를 위해 1학년 2학기에 휴학을 했는데 4년 치 과회비를 한 번에 내서 돌려받기도 난감한 상황”이라면 “휴학 등을 할 사람에겐 다소 부담한 운영방식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공문에서는 과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배움터 교무처와 학생복지처는 이미 교내에 ‘신·편입생 대상 학과 학생회비 납부 관련 학생회 지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글로벌배움터 최태경 학생감동팀장은 “잊따른 민원 발생에 대처하고자 불이익에 대한 위압적인 문구는 제외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납부와 투명한 절차 마련을 독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평균 신입생 과회비는?

이번 해 우리학교 양 배움터 각 학과들의 평균 신입생 과회비는 어느 정도일까. 단과대학(학부) 학생회장 및 학과 학생회장을 통해 이번 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과회비가 10만원 미만인 단과대학은 △글로벌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계 자유전공학부 △중국어대학이다. 10만원대의 과회비를 걷는 단과대학에는 △사범대학 △상경대학 △서양어대학 △영어대학 △이공계 자유전공학부 △일본어대학이 있다. 20만원대의 과회비를 책정한 단과대학은 △경상대학 △공과대학 △국제지역대학(국제스포츠레저학부 미포함) △국제학부 △동양어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번역대학이다. 동유럽대학은 30만원대의 과회비를 걷고 있다.

단, 법과대학은 2017학년도까지 존속하되 신입학생이 없으므로 제시하지 않았다. 법학과에서 재학생에게 별도로 징수하는 과회비는 없다. 또한 이번 해 국제지역대학으로 편입된 국제스포츠레저학부는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재학생에게 연 단위로 4만원의 과회비를 징수한다.

취합된 표본 학과는 서울배움터 11개 단과대학 34개 학과 중 34개 학과, 글로벌배움터 9개 단과대학 42개 학과 중 42개 학과로 신입생 평균 학생회비는 10만원 미만에서부터 20만원을 웃도는 액수까지 다양했다.

◆같이 입학한 새내기, 과회비 1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단과대학별로 학생회비 금액에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무엇보다 각 학과별 인원의 차이 및 학교의 자치운영비 지원 금액에 있어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김범(국제 11) 국제학부 학생회장은 “학부의

경우 단대에 비해 자치회비나 교비 지원이 적다”며 “하지만 단대 차원의 행사와 학과 단위 행사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에 과회비가 다소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각 학과별 신입생 정원만 살펴봐도 20명이 안 되는 학과가 있는가 하면 100명이 훨씬 넘는 학과도 있다. 신소영(동양어·몽골어 13)양은 “20만원이 넘는 과회비에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우리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인원이 적어 아무래도 한 학생 당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과별 인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과규모 등에 따라 학교 지원금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과별로 제반사항이 다르기에 과회비 금액에도 차이가 난다. 손보미나(국제지역·아프리카 10) 국제지역대학 학생회장은 “배움터별, 학과별로 진행되는 행사의 수나 규모가 달라 과회비가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간총회, MT 등 필수적인 행사만 진행되는 학과가 있는 반면 기본적인 행사를 포함해 학술제, 소모임 지원 등 다양한 행사운영을 하는 학과도 있어 과회비 책정 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회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박은정 교과부 대학선진학과 주무관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수반되는 경비가 있으므로 이를 학생회비를 걷어 충당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그 경비를 걷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게끔 학교 당국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고등교육법 상 학생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학칙으로 규정하게 돼 있으나 총학생회를 제외한 단과대학 및 학과와 같은 하위 조직 활동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과회비 징수에 있어 임의적인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과회비는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기반이 된다. 그럼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송지혜(통번역·태국어 13)양은 “과회비는 우리가 참여하는 행사를 위한 비용이고 총회를 통해 예·결산 공개만 잘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그래도 학생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안을 통해 과회비가 하향 조정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꿈을 키우는 세상
KYOBO
교보문고

스마트폰으로
연예 기사를 읽으면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전자책으로
시 한편을 읽으면
자신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보문고,
당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교보문고 eBook sam

사라는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랑을 만듭니다.

쌍용건설 워크아웃, 사이버외대는 이상 무 사이버외대와 노천극장 공사현황

이번 달 4일(월) 쌍용건설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인 워크아웃(Workout)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이 진행하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사이버외대) 신축교사 건설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며 완공시점도 이번 해 7월에서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준 서울배움터 건설기획팀 팀장은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완공시점 지연이 우려됐지만, 공사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차질이 없다”며 완공시점도 미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쌍용건설은 실사중이기 때문에 회사가 법정관리체제에 들어갈 경우는 공사가 미뤄질 여지가 있다”고 말해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이버외대 신축교사는 지난 해 2월 교수진과 학생들의 편의를 높이고 사이버외대의 오프라인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배움터

에 건설을 시작했다.

한편, 노천공사 철거 및 잔디광장 조성 공사는 이번 달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5월 중순으로 완공시기가 미뤄졌다. 김재준 건설기획팀 팀장은 “현재 노천극장 철거공사는 완료가 됐지만 잔디를 심기 위해 부어놓은 흙이 아직 자연 침하가 되지 않아 잔디를 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잔디를 심는 작업도 잔디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인 4월 중순부터 가능해 그때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완공시기도 잔디가 다 자라는 5월 중순으로 미뤄지게 됐다”며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배움터 노천극장 철거 공사는 학교 측과 지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합의한 뒤 지난 1월부터 진행됐다. 당시 합의한 사항은 학생들이 잔디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노천극장의 부지 위에 다른 건물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earTHeMe

우리나라의 동아리, 궁금하지 않니?

외국인학생들이 말해주는 다양한 동아리 이야기

이번 달 13일(수)과 14일(목)에는 서울배움터, 21일(목)은 글로벌배움터에서 동아리 박람회가 각각 열렸다. 우리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각 동아리들이 자신의 동아리를 소개하고 뽐내는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동아리를 친목다지기의 장으로 여기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로맨스를 꿈꾸기도 한다. 그렇다면 외국인학생이 경험한 그 나라의 동아리는 어떨까?



▲이산산 (李珊珊), 중국·중국어통번역 10

중국에서 대학을 다녔을 때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원래 무술에 관심이 있어서 중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태권도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요. 학생 사부님이 두 분 계셨는데, 중국 태권도 국가대표선수였던 한분은 많이 엄격하셨어요. 그분에게는 지적받고 혼난 것만 기억이 나네요. 특히 발차기를 할 때 제가 높게 차지 못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6개월 동안 활동했는데 동아리 활동이 끝날 마지막 무렵 그 사부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생각 나네요. “너 밖에 나가면 내 제자라고 말하지마.”

중국 대학에는 태권도 동아리 외에 어떤 동아리들이 있나요?

제가 다녔던 대학에는 영어 동아리, 연극 동아리 등이 있었어요. 그중 워킹 동아리가 가장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아리는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키크고 날씬한 학생들이 주로 활동했어요. 또, 제가 에어로빅 체육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에어로빅 동아리에 가입해야 해 경기 대회에 나가야 했어요. TV에서 보던 하얀색 에어로빅옷을 입고 경기대회에 나간 걸 생각하면 창피하네요.

에티오피아에서 대학을 다닐 때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나요?

저는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에티오피아에서 대학을 다닐 때 자선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제가 활동한 부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모금하는 부서였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지장 받지 않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정적인 것을 포함해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 일을 했죠.

동아리 행사가 있었나요?

에티오피아에도 여기처럼 동아리박람회가 있어요. 동아리박람회에서는 저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축제준비를 했어요. 우리 동아리 말고도 여러 동아리가 참여했는데 적십자 동아리가 있었다는 것이 기억나네요.



▲투들레(Tudele), 에티오피아, 학·석사연계전공 환경학과

에르딘츠씨는 터키의 대학에서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카이세리에 있는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이었어요. 한국어문학과에 있는 동아리가 바로 한국문화동아리죠. 이 동아리에서는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탈춤 △부채춤 △민요 △사물놀이 등을 가르쳐줬고, 우리는 한국문화를 배우고 직접 연습했어요. 저는 동아리에서 △민요 △탈춤 △사물놀이를 배웠답니다.

동아리에서 생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나요?

‘한국 문화의 날’에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춤 공연을 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호응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한 날은 한국에서 온 대학교들의 교육엑스포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문화 동아리 사람들이 박람회에서 직접 통역자로 일했답니다. 그 때를 생각하니 뿌듯하네요.



▲오르한 에르딘츠(Orhan Erdinc), 터키, 국제개발학과 대학원생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세계 브리핑

후쿠시마 원전 잇따른 우려

지난 2011년 최고 위험등급의 원자력 사고를 겪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발전소는 2년 전 재난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안정화 작업에 들어갔으나 이번 달 18일(월) 원인불명의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냉각시스템이 일부 정지되는 등 방사능 누출이 우려되고 있다. 다음 날 바로 부분적인 복구가 이뤄졌으나 도쿄전력의 허술한 관리 실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전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출처 REUTERS 통신

▲대사고 이후 원전 안정화를 위해 2년째 엔지니어들이 투입되고 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시리아 내전, 화학무기 사용까지...

시리아 내전에 화학무기 사용 논란이 일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번 달 19일(화) 반군이 북부에서 화학무기를 발사했다는 시리아 관영통신의 보고가 있었으나 반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정부군에서도 방대한 화학무기를 비축해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달 18일(월)에는 정부군이 레바논 국경지역을 폭격하는 등 내전의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2년 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저항한 평화 민주화 시위에서부터 촉발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약 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유혈사태에 이르렀다.

불쇼이 발레단, 명성에 가려진 불편한 속사정



출처 AFP 통신

▲세계에서 가장 전통 있는 발레단인 불쇼이 발레단이 대형 매춘조직과 다름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계 최고의 발레단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불쇼이 발레단이 최근 내부 갈등과 성 접대 의혹으로 전세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달 17일(일) 극단에서 해고된 한 발레리나가 불쇼이 발레단은 대형 매춘조직과 다름없다고 폭로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발레리나들이 재벌 후견인들에게 성 상납을 하도록 극단 측에서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발레단장은 헛소문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쇼이 발레단은 그동안에도 줄곧 심각한 내부 갈등으로 악명이 높았으나 이처럼 외부에 잇따라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은 처음이다.

번역·정리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10주 야간 회화과정 교육생 모집(94기)

외대 학부생 과정 수료 시, 학점인정(실용외국어-필수)/외국어인증(2007학번부터)/영어졸업인증(2006학번까지)

1. 모집 언어

언어	단계	비고
영어	수준별 10개반	단계별 세분
중국어	기초, 중급	초급 : 문자학습/기초회화 중급 : 일상회화/자유토론 고급 : 고급회화/주제토론
일본어	기초, 중급	
독일어	초급	
스페인어	초급, 중급	
프랑스어	초급	
러시아어	초급	
베트남어	기초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초급, 중급	
아랍어	기초	
티어키어	수준 및 교육일정 맞춤 티어키 정부지원 TOMER	

2. 교육기간 및 시간

가. 교육기간 : 2013. 4. 15(월) ~ 6. 21(금) (월화목금, 주4일 수업)
나. 교육시간 : 19:40 ~ 21:30

3. 접수

가. 기간 : 2013. 3. 18(월)부터 선착순 접수
나. 접수방법 : 외국어연수평가원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 수강신청

4. 교육비

가. 금액(공동사항 : 전형료 30,000원 포함)
- 일반인 : 594,000원, 일반인(재등록) : 537,000원
- 본교생 : 482,000원, 본교생(재등록) : 426,000원
- 졸업생 : 481,000원, 졸업생(재등록) : 425,000원
※ 재등록 : 2000년 이후 10주 야간과정 또는 20주 주야간 정규과정 수강자
※ 본교생 및 졸업생 : 학부, 대학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나. 납입방법

- 카드결제 : 외국어연수원 홈페이지 → 온라인접수 → 카드결제
- 현금결제 : 외국어연수원 홈페이지 → 온라인접수 → 실시간 계좌이체

5. 반편성 시험 :

가. 일시 : 2013. 4. 6(토) 오전 10시

나.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6. 언어별 시험 유형

가. 영어 : LC&RC → 45문항(어휘, 문법, 작문)
원어민 인터뷰(1:1로 진행) → 소요시간 5~10분
나. 기타 외국어 : RC(Reading&Comprehension) → 40~50문항(어휘, 문법, 작문)
원어민 인터뷰(1:1로 진행) → 소요시간 5~10분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국어연수평가원 홈페이지

8. 문의사항 : 외국어연수평가원 운영팀(02-2173-2523~2524)

밥은 먹고 다니니?

지난 2월 경향신문에서는 전 연령을 통틀어 20대의 결식률이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결식은 △아침 △점심 △저녁 등 식사시간대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뜻한다. 20대 초반 여성의 결식률은 심지어 전 연령, 남녀를 통틀어도 가장 높았다. 20대 초반 여성인 기자도 이 기사를 보고 공감했다. 뉴스 보도를 보면서 ‘그래 당연하지, 안 봐도 알겠네’를 외쳤던 필자다. 하지만 결식률이 높은 그 이유는 동의하기 어려웠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결식의 이유는 다름 아닌 취업난이었다. 당신의 경우에서 생각해보자. 당신은 취업이 안돼서 밥을 못 먹는 것인가?

◆우리가 밥을 못 먹는 진짜 이유

20대 후반 젊은이들이 매달 4㎏ 이상 굶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앞두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한 톨이라도 아끼고자 끼니 횟수를 줄인 결과로 분석된다. 6일 통계청의 ‘2011양곡연도 양곡소비량 조사’의 부가조사를 보면 20대 초반 여성이 월 5.6회에 걸쳐 끼니를 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녀를 통틀어 전체 연령층 가운데 결식 횟수가 가장 많았다. …

- 출처 2012년 2월 6일 경향신문

본지에서는 실제 우리학교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다. 설문조사는 이번 달 14일(목)부터 19일(화)까지 6일 동안 진행됐으며 양 배움터 총 125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 결과 하루에 2끼를 먹는 학생이 54.55%로 가장 많았다. 또 때에 맞춰 식사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7.18%로 그렇다는 대답보다 14.36% 높았다. 세 끼니를 제때에 맞춰 식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학교 학생들은 결식하는 주된 이유를 복수선택한 결과 먹을 시간의 부족을 43.78%로 압도적으로 높게 꼽았다. 반면 기존 언론 보도에서 결식의 이유로 결론지었던 취업난은 0.94%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결과로는 금전적 어려움이 19.99%, 함께 식사할 사람의 부재는 15.67%로 나타났다.

◆“하루 3번, 밥도 잘 먹지 못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불쌍해요. 다 공부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끼니를 거르는 것이니까요”…

기자는 이번 달 19일(화) 오후 4시경에 글로벌배움터 후생복지관 식당을 찾았다. 점심식사를 하기엔 늦고 저녁식사를 하기엔 조금 이른 이때에도 식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그곳에서 만난 손지은(경상·국제경영 10양) 또한 늦은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수업이 6교시까지 연속으로 있는 바람에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라며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그보다 연이은 수업이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3끼니를 모두 챙기는 건 어렵죠. 그래서 하루 2끼 정도 먹는 편입니다”라 말했다. 손양에게 20대 결식률 최고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이야기하자 손양은 “매우 공감이 갑니다”라며 “하루 3번 밥도 잘 먹지 못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불쌍해요. 다 공부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끼니를 거르는 것이니까요”라고 답했다. 이어 “나중에 취업되고 안정적인 생활이 고착되면 그 때 잘 챙겨 먹으면 되겠죠”라며 웃어 넘겼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새내기들도 불규칙한 식생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지원(통번역·태국어 13양)은 “지난 고등학교 시절보다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잇단 수업과 아침에 여유 있게 일어나지 못하면 자연스레 끼니를 거르게 되요. 그래서 요즘 조금 살이 빠지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



감이 듭니다”고 말했다.

21일(목) 오후 5시에는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매점을 찾았다. 친구들과 함께 컵라면과 과자를 먹고 있는 이진솔(통번역·아랍어 09양)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점심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점심은 수업이 있어 쉬는 시간에 잠깐 매점에서 김밥을 먹었고 지금은 간식이예요”라고 답했다. 평소 식습관을 묻자 “거의 1~2끼 먹는 수준이죠. 2끼를 먹는다는 건 그날 잘 먹었다는 뜻입니다”라며 “식사를 제 때 못하는 건 밥을 여유롭게 먹을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대로도 괜찮을까

불규칙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식사가 우리학교 학

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허수안 글로벌배움터 보건소 선생님께 여쭙봤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산 분비 또한 규칙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위장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면 영양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해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달 24일(일)은 국제항결핵·폐질환연맹이 지정한 ‘세계 결핵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작성한 ‘글로벌 결핵 관리 보고’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새로 결핵에 걸린 발생률 △현재 결핵을 앓고 있는 유병률 △사망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약의 내성으로 치료가 잘 안되는 다제내성 환자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젊은여성들이 대거 모여있는 여자대학교를 올해 상반기 중 결핵 무료검진사업 대상

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다이어트 등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대생이 의외로 결핵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

- 출처 2012년 2월 2일 국민일보

20대 초반 여성의 결핵 또한 높은 결식률과 비슷한 상승을 보인다. 허선생님은 그 두 비율에 연관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굶은 결식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나 온갖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한다”며 “심한 경우에는 결핵까지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결핵은 결식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허 선생님은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TV방송을 통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며 경고한다. 간헐적 단식이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16~24시간 정도의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허 선생님은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 단식 외의 식사는 규칙적이고 골고루 영양 잡힌 식사를 전제한다”고 말했다. “근래에 들어서는 1일 3식의 관례들이 깨지고 있다”며 “폭식보다 소식이 좋고, 소식보다 단식이 좋다고 하지만 단식은 그 전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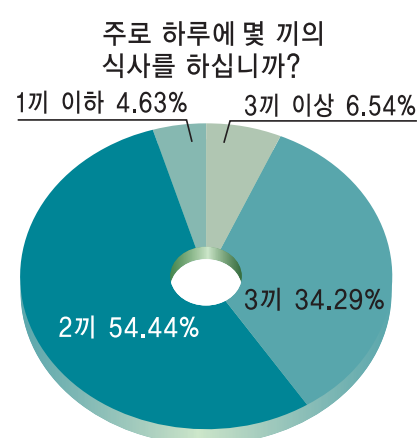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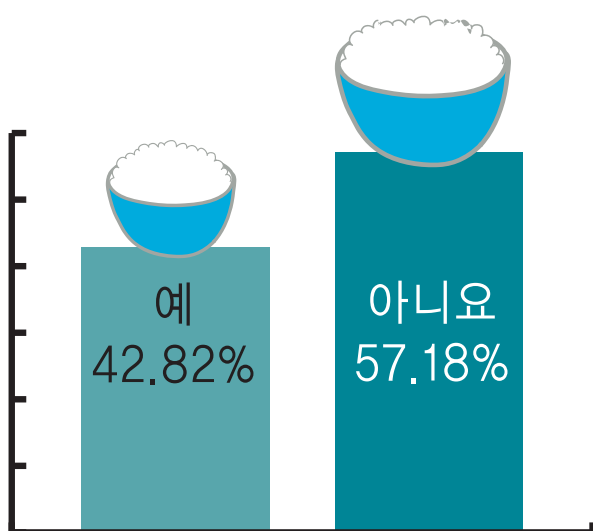
이어 허 선생님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체중감량이나 건강관리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20대에는 젊다고 자부해 건강관리에 소홀한 면이 많은데 지금부터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돌이킬 수 없으니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본인의 식사와 운동 등의 건강 스케줄을 형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우리학교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따라서 앞서 만났던 손지은 양이나 이지원 양의 ‘시간이 지나면 잘 먹을 수 있겠지’ 혹은 ‘몇 끼니를 걸렀으니 살이 빠지지 않을까’ 같은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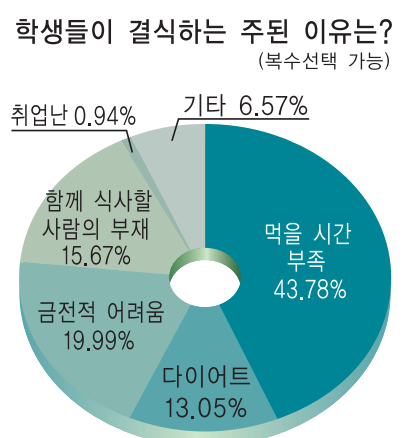
이에 본지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한 끼니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본지와 학생들의 학내복지를 대변하고 책임지는 특별기구이며 클린캠퍼스 사업과 휴먼구역설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26대 학생복지위원회가 함께한다. 이벤트는 다음 달인 4월 1일(월)에 오후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국제학사 앞에서 있을 예정이다. 글로벌배움터에서는 다음 달 11일에 정기총회를 여는 34대 총학생회 채움과 함께 학생들을 만날 계획이며 같은 날인 4월 1일(월)에 오전 8시 50분부터 소신 시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소는 도서관 앞 버스승차장과 본관 1층 현관이다. 이번 끼니 이벤트의 경우 이번 달 29일(금)에 발행되는 외대학보 958호를 가져와 기사를 제시하면 간단한 음식을 배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벤트의 세부 사항들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글·사진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때에 맞춰 식사하는가?



설문기간 : 이번 달 14일(목)~19일(화) 6일간 진행
설문대상 : 양 배움터 총 1254명



〈현장 르포 – 취준생들〉

“나는 대학생...공부 아니라 취업공부 합니다”



▲서울배움터 학생회관의 스터디룸에서 밤늦게까지 취업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 모자를 쓴 학생은 취업을 위해 △TOEIC·TOEFL·TESAT·HSK 성적 △한자·컴퓨터 자격증 △4점대의 학점을 준비해 왔다.

표백 세대들은 아주 적은 양의 부를 차지하기 위해 이전 세대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경쟁을 치러야 하며, 그들에게 열린 가능성은 사회가 완성되기 전 폐기 있는 구성원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가장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조차 엘리트 조직의 고트머리가 되기 위해 몇 년을 골방에 처박혀야 하고, 그런 노력이 결실을 얻은 뒤에야 조직의 말단에서 다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장강명, 『표백』, 195~196p

제 16회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고 2011년 출판된 소설 『표백』에서는 젊은이들을 ‘표백(漂白) 세대’라고 표현한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크게 발전하지 않는 완성된 사회에 접어들었고, 완성된 사회 속 젊은이들은 지배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한다.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슴 깊은 곳에 있지만 그것을 풀어내지 못한 채 거대한 흰색 세계에 의해 표백돼 버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누구나 ‘취준’(취업준비)이라는 고비를 거친다. 이 기획기사는 취준생에서 시작해 취준생으로 끝나는 르포다. 날아오를 날을 꿈꾸지만 아직 골방에 앉아 있는 취준생들의 생각과 시각을 담았다. 그들은 정말 표백 세대일까. 기사에 등장하는 인터뷰이들이 신원을 밝히길 꺼려했기 때문에 전부 가명으로 삼는다.

“후배 여러분...저학년이라고 놀지 마세요”

취준생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서울배움터 도서관 6층 휴먼실에 가보니 담배를 뿔뿔 피는 남학생들이 보였다. 그 중 담배연기와 함께 생각에 골똘히 빠진 것처럼 보이는 한 학생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왔냐는 질문에 “취업공부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28세 권하늘(글쎄·경영 05)군으로 2년 반째 회계사 시험 준비 중이다. 오늘 역시 지난 2년여의 어느 하루처럼 회계사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찾은 것이다.

대학생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냐는 물음에 하늘군은 피고 있던 담배를 비벼 꺾었다. 그의 새내기 시절은 찬란했다. “입시에 대한 보상심리였을 까요.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놀 수 있는 만큼 맘껏 놀았어요. 노는 게 맞는 것인 줄 알았고, 놀아도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은 “놀지 말걸 그랬어요. 후회돼요”였다. 군대에 다녀온 이후부터 취업을 겨냥해 공부를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너무 늦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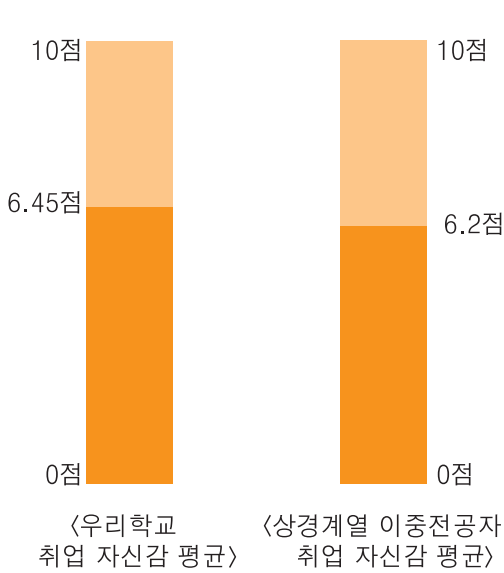
이다. 자유전공학부로 학교에 입학한 그가 군대에서 돌아와 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을 위해서였다. 그때부터 회계사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공부는 생각보다 길어져 하늘군은 아직 졸업을 하지 못했다.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3층, 시너지플레이스에서 만난 오희영(동양어·아랍어 11)양 역시 경영학을 공부 중이었다. 그녀는 “경영전략학회에 들어가고 싶어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공책에는 볼펜 자국이 가득했다. 아랍어 전공에 경영을 이중전공하고 있다는 그녀는 “경영학과를 이중전공하는 것도, 경영전략학회를 준비하는 것도 전부 취업을 위해서죠”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무슨 스펙을 준비했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녀는 “뭘 한 게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현재 3학년인 희영양은 △영어공인시험 △아랍어 스터디 활동 △중동학회 활동 △4점대의 학점 △교육봉사 △대학생기획봉사 등의 성실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시 공책에 얼굴을 파묻은 희영양을 두고 스터디룸에서 나와 인터뷰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언니 어떻게 거기 들어갔지? 하... 나는 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들려왔다. 돌아보니 시너지플레이스의 바(bar)식 의자에 앉아있는 두 여학생이 보였다. 그들은 “학교 다니면서 많이 놀았어요. 외부활동 하는 대신 주로 학과 친구들과 술 마시고, 카페 가서 수다떨고 그랬죠”라고 말했다. 오늘 하루 종일 자기소개서만 작성했다는 08학번 그녀들은 “놀지 말걸 그랬어요. 연합 동아리도 하고 교외 활동도 많이 했어야 했어요. 자소서(자기소개서)에 쓸 말이 너무 없어요”라며 한숨쉬었다. 그녀들에게 “취업 자신감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묻자 “음...0.1점이에요? 그냥 1점으로 적어주세요”라고 대답했다.

우리학교 학생들 취업 자신감 점수는?

3월 14일(목)~21일(목) 본지가 우리학교 재학생 1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의 취업 자신감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 중 6.45점이었다. 여기에 더해 희영양처럼 취업을 목적으로 이중전공을 경영이나 경제학과로 선택한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다. 3월 21일(목) 서울배움터 상경계열 이중전공자 100명에게 “상경계열의 이중전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니까”라고 묻은 것. 그러자 그 중 65명이 “취업에 도움



이 될 것 같아서 선택했다”고 답했다. 그럼 그들의 취업 자신감 점수 평균은? 반 이상이 취업을 위해 상경계열을 선택했지만 전체 재학생 평균보다도 오히려 조금 낮은 6.2점이었다.

소년이어 야망을 가져라? ‘닥치고 취준’

회계사 준비생인 하늘군의 취업자신감은 8점으로 높은 편이다. 장기간 거르지 않고 도서관에 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일까. 작년에 드디어 그는 회계사 1차 시험에 붙었다. “2차 경쟁률이 4:1 정도 되지만 열심히 할 겁니다. 점점 공부에 자신감이 붙고 있어요”라며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그럼 혹시 지금 행복한가요?”라고 물으니 그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장기간 해온 회계사 공부가 이제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열망이 있었다. “사실 저는 패션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발벌이가 안 되기 때문이죠”라고 예상했던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집이 좀 더 여유로웠다면 패션디자인을 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패션에 대한 열망을 억누른 그는 공부하기에 편한 회색후드를 뒤집어 쓴 자람이었다.

서울배움터 후문 쪽 토스트집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던 자취생 한병호(동양어·몽골어 09)군은 “제 꿈은 원래 PD예요. 제가 보고 듣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든요”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중

전공도 방송영상학을 선택했다. 하지만 4학년이 된 지금은 생각이 변했다고 했다. “다시 이중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상경계열을 선택할 것입니다”라며 “얼마전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제가 삼수를 해서 나이가 좀 있어요. 그 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빨리 취업해야 해요. 피디는 (가정을 유지할 만큼 수입을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라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에서는 서류를 심사할 때 상경계와 비상경계로 나눈다 들었다”며 상경계를 전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의 취업자신감은 5점이었다. “지금까지 취업준비 한 게 없어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네요”라는 그. 대학생활을 물으니 독특한 봉사 경험이 쏟아져 나왔다. △천 마리의 유기견 돌보기 △치매환자들 생일상 차려주기 △고승덕 변호사와 함께 드림파머스 기획 등에 △어플리케이션 관련 창업 경험까지 있다 한다.

윗사람이 시키는 일보다는 본인이 주도하는 일을 즐길 것 같은 그에게 “PD에 대한 미련은 없냐” 물었더니 “아쉽지만 딱 접었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지금도 아는 형을 도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상태지만 곧 그만 두려고요. 공부 해야죠”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프로젝트 기획은 공부 아냐가요?”라고 묻자 “취업공부 말이예요”라고 답한다. 회원수 1,111,988명을 지닌(3월 22일 기준) 한 취업 정보 카페 이름이 떠오른다. ‘닥치고취업’.

그렇다면 병호군이 표현한 ‘공부 아닌 취업공부’라는 건 뭘까. 이번 해 1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트레인모니터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대학생과 취준생이 현재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스펙은 자격증(67.6%, 중복응답)과 영어공인점수(63.6%)였다. 또한 가장 쌓기 어렵다고 느낀 스펙 역시 영어공인점수(42.4%)였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취업 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스펙 1등은 영어공인점수(44.4%)였다. 자격증 역시 30.8%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툼 소녀의 모험」의 저자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훈련이 전부다. 복숭아도 한때는 쓴 씨앗이었고, 꽃배추도 대학교육을 받은 양배추에 불과하다”라고.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공부 아닌 취업공부’는 자아를 꽃으로 피워내기 보단 자아를 억누르는 훈련이 아닐까.

잘 가, 대학언론 / 가지 마, 대학언론

대학언론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보를 자주 보지는 않아요. 사실, 어디에서 학보를 얻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학보를 읽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잘 느껴지지 않아요.”

— 안찬희(상경·경제 12)

다음 달 7일(일)은 신문의 날이다. 신문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품위 등을 강조하기 위해 언론인들이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을 기념하며 제정한 날이다. 하지만 지금 대학언론은 학생들의 적은 구독률과 낮은 참여율, 그리고 학교 측과의 마찰로 인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본지는 신문의 날을 앞두고 성균관대학교 신문인 <성대신문>의 정지는 편집국장과 배재대학교 신문인 <배재신문>의 배민경 편집국장으로부터 현대 대학언론에 대해 들어봤다. 또 대학언론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채영길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를 인터뷰하고 가상간담회 형식으로 대학언론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편집국장님들께 현재 학보를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민경(이하 배) : 배재신문은 한 학기에 발행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점 때문에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2학기에 새로 선출된 총장이 학교의 전산화를 추진했는데, 그 일환으로 배재신문을 전자화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기자들은 이를 반대했지만, 결국 전자화는 진행됐고 대신 한 학기에 개강호와 종강호만 종이신문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전자화를 진행하면서 전체예산이 상당부분 감축돼 지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은(이하 정) : 성대신문은 지난 해 학교 측의 검열에 반발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업이

끝난 지금도 저희는 신문을 발행할 때 주간교수와 협의하고 배포를 하기 전 총장이 미리 읽어본 뒤 배포를 허락하는 구조이기에 편집권이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힘들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저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대학의 학보들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언론의 위기’라는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 : 아무래도 학생들이 재미나 흥미 위주의 기사를 많이 찾는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안의 문제보다 취업을 위한 스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대학언론이 이들 수요에 발맞추지 못해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 : 지금 벌어지고 있는 편집권 문제나 교비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독자의 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대학언론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낮아진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대학언론의 경우 대학교의 학술지나 학생운동이라는 시대의 키워드가 있었기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언론이 변한 시대의 키워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고 눈에 띄는 키워드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분위기가 학교 안의 사안보다는 취업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대학언론은 이에 발맞추지 못한 채 정체성이 모호해져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채영길(이하 채) : 저는 좀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학생들의 구독률이 떨어졌다는 점이 큰 이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최근 대학언론을 대체할 매체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단이 대학언론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각 학과나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매체를 만들어 홍보를 해 굳이 대학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대학언론은 새로운 매체들과 차별화된 소재를 찾지 못했고, 그 결과 학생들은 대학언론을 읽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찾지 못하게 돼 대학언론의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언론이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대학교 안에 대학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 : 배재신문에서 학교의 열악한 도서관 환경을



▲대학언론 외에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는 많다.

여러 차례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시설관리처에서 기사를 읽고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교 측이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 휴식공간이 적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를 계기로 학교 측이 교내 곳곳에 의자를 설치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학생들의 구독률이나 참여율은 낮지만, 대학언론은 아직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있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 저도 대학언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대학언론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 발행하는 홍보지가 그 역할을 대체하겠지만, 홍보지는 특성상 학교의 입장에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학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의 옳은 변화를 유도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 :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대학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해야 대학교에 대학언론이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대학언론들은 자신들이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과나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매체를 생산하는 만큼 이러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만드는 매체들이 서로의 여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대학언론이 수행해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학교에 필요한 대학언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을 위해’ 대학언론이 존재한다는 생각보다 ‘학생들과 함께’ 대학언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

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에 필요한 대학언론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 :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인 만큼, 신문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이미지를 벗고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는데 일정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끌어올린 관심을 토대로 학교 안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 : SNS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신문의 쿼츠를 통해 상품을 증정하거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신문에 보도해주는 방식으로 학생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방송국이나 영자신문사 같은 다른 언론기관들과 함께 논의를 펼쳐 더 큰 목소리를 낸다면 대학언론이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채 : 제가 볼 때는 꼭 많은 학생들이 대학언론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와 ‘최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독자 수가 비록 적더라도 적은 독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대학언론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단체의 장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취재보다는 한 단체의 일원부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취재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 · 사진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영화에 주석을 달다 기자 고정 칼럼 양재상 기자
‘영화에 주석을 달다’는 한 장면을 통해 영화의 새로운 면을 보는 코너입니다.

새롭지 않은 세계

아무도 모르는 비밀장소에 두 경찰이 있다. 이들은 비밀리에 한 폭력조직을 무력화시키려는 내용의 ‘신세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 명은 프로젝트를 위해 조직에 투입된 스파이로 다른 한 명은 스파이로 투입된 경찰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상관이다. 경찰은 스파이로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의 얼굴은 임무를 모두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조직에서 자신의 정체를 알아채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그에게 부여되는 또 다른 지령.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냐며 분노하는 그에게 상관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

신세계. 스파이로 투입된 경찰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자신에게 더 안전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리라 기대했다. 스파이로 활동하면서 생기는 불안감이 없는, 그런 세계 말이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돼도 그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 이전과 비교해 전혀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되면서 점점 지쳐간다. 지쳐가던 그는 느끼지 않았을까. 아무리 임무를 완수해도 또 다른 임무가 부여될 뿐, 변화한 새로운



▲신세계

세계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의미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항상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간다.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좀 더 자유로워지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대학생 때는 ‘취업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겠지’라는 기대를 한다. 그러나 기대는 그때뿐. 대학교에 들어가도, 취업을 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옛날에 경험한 ‘구세계’와 지금 막 경험한 ‘신세계’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것에 실망한다.

시간이 지나도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 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다. 세계가 변할 거라는 기대를 아예 없애거나, 세계를 보는 자신의 시각을 바꾸거나.

전자의 경우처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에게 남는 건 항상 그대로인 공허한 자기 자신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겠다. 파란안경을 쓰면 세계가 파랗게 변화하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쓰고 세계를 바라보면 어떨까.

맨눈으로 보는 그림 기자 고정 칼럼 임채윤 기자
‘맨눈으로 보는 그림’은 그림과 화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 그 자체만을 감상하는 코너입니다.

다가가면 쏠거냐?

그림을 펼친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빨간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다. 찜찜쩍처럼 말랑말랑한 것 같은 볼. 껌이라도 붙은 전적이 있는지 싹뚝 찢린 바가지 머리. 몸에 비해 지나치게 큰 얼굴. 손가락이 생략된 조그만 손까지. 매우 귀엽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귀엽다며 볼이라도 꼬집을라치면 손가락을 꼭 물어버릴 것 같은 매서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싫은지 작은 종이상자를 꾸욱 움켜쥐고 경계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이 그림의 이름은 ‘판지 탱크’다. 저 노란 박스, 잘 보니 탱크를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어린 아이에게 판지를 안겨주면 무엇을 할까. 다른 애들은 모르지만 이 여자는 탱크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세상과 자신을 차단하는 것을 선택했나 보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모습, 왠지 낯설지가 않다.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와 닮았다. 판지로 자신의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바깥을 경계하는 모습.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낄 때. 아무도 나



▲요시토모 나라, 판지 탱크 3

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때.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시작하기를 망설일 때. 그런 생각들이 들 때의 인간은 누구나 이 녀석 같지 않은가.

그러나 아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 진짜 탱크는 아니라는 점을 돌아보자. 판지로 만들어진 것이 견고해야 얼마나 견고하겠는가. 무서움과 잔인함을 상상하기에 이 탱크는 너무 종이 티

가 난다. 아이의 성벽은 철옹성이 아닌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누군가 조금만 의지를 지니면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정도인 것. 손가락을 물릴 위험도만 감수하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이 아이가,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측은해진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 상처받아 탱크라는 성벽을 만들고 자신을 방어하지만, 그 재료가 판지인 만큼 누군가가 접근할 여지를 남겨둔다. 아무리 세상이 미워도 절대적인 차단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림을 달는다. 이 아이가 몸을 불쑥 내밀고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관심을 은근히 기다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학술 인터뷰〉

“모든 것이 소형화되고 있는 이 시대, 그곳엔 박막이 있었다”

우리학교 전자물리학과 정창욱 교수

사진 신민지 기자

“우리는 지금 LCD모니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LCD가 나오기 이전 CRT모니터를 기억하시나요? CRT모니터는 LCD모니터와 달리 박막(thin film)이 쓰이지 않았어요.”

박막은 마이크로단위인 머리카락 굵기(~100마이크로미터)보다 약 1000배 이상 얇은 막이다. 박막을 만드는 과정을 증착이라고 표현하는데 박막은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Sputtering △우리학교 자연과학대 물리학과에 있는 PLD(Pulsed Laser Deposition) 등과 같이 특수한 장비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약 20여년 전 400만원을 호가하던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크게 떨어졌고 그 크기도 매우 컸었죠. 그 이유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축전기나 저항 같은 부품들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박막증착기술과 마이크로 패터닝 기술 등을 이용해 회로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렇듯 더 많은 기능을 작은 공간에 넣기 위해 박막을 사용하는 거죠.”

“1g으로 만드는 소자를 박막으로는 0.001g 이하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원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면에서도 박막이 필요하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보통 마이크로 이하인 10나노미터까지는 거의 남아있다. 때문에 그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박막이 꼭 두꺼워야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100나노미터의 박막을 만들 때 1분이 걸리고, 5마이크론의 박막을 만들 때에는 50분이 걸린다고 하자. 박막을 얇게 만들면 두껍게 만들었을 때보다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박막은 생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뛰어나다.

“박막 in 디스플레이”

“예전 모니터들은 대체로 빨간색과 노란색의 튠을 띠었어요. 좋은 모니터일수록 자연색에 가까운 녹색과 파란색의 색감을 가지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고화질의 디스플레이는 바로 녹색과 파란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박막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막은 △CPU △LEM △반도체 △디스플레이 △RLC회로 △터치패드 △태양광전지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 우리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 터치패드에서 박막이 쓰이는 곳을 살펴보자. 스마트폰의 터치패드에 많이 쓰이는 정전식 터치패드이다.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 스마트폰의 이 정전식 터치패드는 화면상의 박막필름에 신체가 닿았을 때 그 부위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해서 그 지점을 입력 커서(Cursor로 인식하는 터치스크린이다. 때문에 손이 닿은 부분은 전기가 잘 통과해야 하고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 두 부분 사이에 서로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하는데, 이 때는 절연기능가진 박막이 쓰

인다. 또, 터치패드에 손이 닿을 때 발생하는 마찰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내구성이 뛰어난 보호박막도 사용된다. 전기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적절히 방출시켜 주지 않으면 휴대폰이 뜨거워져 과열로 인해 제품이 손상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열 방출 기능을 가진 박막도 쓰이고 있다.

“박막을 입혀서 원하는 성능을 가진 장치를 만드는 과정, PR을 이용한 식각”

원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판 위에 박막을 특정한 부분에 하나하나 입히고 또 다른 박막을 입히는 것을 반복한다. 하지만 일반칼로 나노미터의 박막을 자르는 것은 고속대량 공정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PR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박막 증착을 이용해 회로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회로를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에 빗대어 봅시다. 나무미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땅에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하죠. 그 다음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비효율적입니다. 이럴 때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한번에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PR입니다. 예를 들어 미로는 벽과 길로 이루어져 있는데, 길에 강력한 자외선을 한번에 조사하면 나무가 모두 말라죽어서 길이 될 수 있겠죠.”

기판(substrate)위에 박막(thin film)을 증착하고 그 위에 PR(photolith)용액을 균일하게 발라서 PR 막을 만든다. PR막은 종류에 따라서, 빛을 쬌이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성질을 가진다. 그 다음 이 PR막 위에 남기고자 하는 부분에만 불투명한 덮개(mask)를 씌운다. 자외선(UV)을 쬌어주면 PR막이 반응해서 상태가 변하게 된다. 그리고 덮개를 걷어낸 다음 현상액(developer)을 뿌려주면 자외선을 쬌어준 부분의 PR막이 떨어져 나가고 이 부분의 박막이 외부에 노출된다. 이후 에칭을 기판 전체면에 해 주더라도 PR막이 있는 부분은 보호되어서 남아 있고 PR막이 떨어져 나간 부분의 박막은 떨어져 나가서 다양한 회로를 만들 수 있다. 박막증착, PR막 제작, PR막 현상, 에칭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와 기능을 가진 device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device에는 RAM, HDD, 메모리

스틱 같은 기억소자와 LCD, LED, OLED같은 디스플레이 패널, 태양전지 등이 있다.

“박막은 실리콘 반도체 산업과 같이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박막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실리콘으로 집적소자를 개발하면서부터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컴퓨터가 개인용으로 쓰여지면서부터이죠.”

〈박막제조 기술의 동향과 전망〉

정재인 · 양지훈 논문참조

1980년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박막제조 기술은 친환경 공정과 응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향후에는 피막 특성을 위한 다양한 공정 개발과 함께 초고속 증착과 저온가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에너지 소재 및 친환경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막이 있었기에 우리는 어제보다 발전된 성능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내일은 더 얇고 뛰어난 성능의 기기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하면 요즘 아몰레드가 유명하고 있잖아요. 아몰레드에도 박막이 쓰이나요?

“네, 물론이죠. 아몰레드는 유기물을 이용해 만들어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유기물로 박막을 만드는 것은 무기물을 쓰는 것보다 어려워요. 박막의 기본공정에는 열이나 약품으로 녹이는 과정이 있는데 생명체인 유기물은 이 과정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기물에 열을 적게 가해서 박막을 만들게 됐고, 무기물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몰레드가 색감이 훨씬 좋아서 현재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죠”

〈용어설명〉

· 나노미터(Nanometer)

십억분의 일, 10⁻⁹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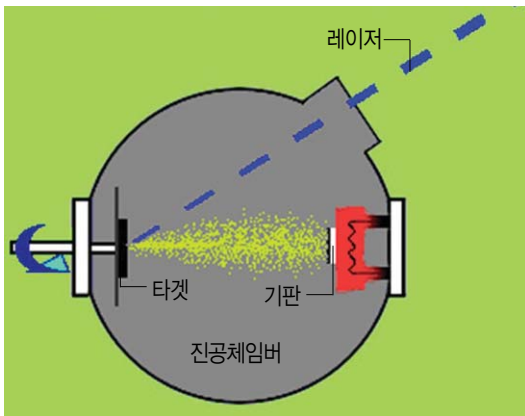
· 마이크로미터(micrometre, 단위: μm)

미터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길이의 단위. 10⁻⁶m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우리학교에 있는 PLD사진



▲PLD를 이용한 박막증착 과정. 만들고자 하는 물질의 타겟을 진공 챔버에 위치시키고, 렌즈로 집중시킨 레이저를 쏘아 튀어나오는 플라즈마가 타겟과 마주보고 있는 고온의 기판에 묻어 결정화되는 것을 이용합니다.

사진 우리학교 PLD 연구실 제공

〈정창욱 교수의 수상내역 및 주요논문〉

KSS2000 Award, Yongpyung Conference. Aug16-18,2000. Korea

JST ERATO Fellowship, 2002 Feb - 2005 Feb.

- 논문 : · Effect of unreacted Mg on the pinning properties of MgB₂, Journal 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317, 501-503 March (2007). Mar.
- Electrical and magnetic properties of Sr(Ru,Cr)O₃ thin films,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46(6), 2228 (2010). Jun. 3 authors.
- Tuning of the Ferromagnetic Properties in SrRuO₃ Thin Films,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8 (1), 83-86 (2011). Jan.
- Coherent growth behavior of an orthorhombic (Ca,Sr)SnO₃ thin film on a cubic SrTiO₃(110)substrat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61(5), 795-798 (2011). Sep.
- Epitaxial oxygen sponges: Topotatic phase transformation in strontium cobaltite films, Advanced Material, (Accepted, Mar, 2013)
-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polycrystalline tetragonal SrCu₂O₂, J. Ceram. Process. Res. 12(6), 673-676 (2011) Dec.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이민정 기자

과정은 쓰지만 결과는 달콤?



기자는 지금까지 학술면에 실린 세 분의 교수님의 인터뷰를 했다. △중국어대 박재우 교수 △생명공학과 명희준 교수 △이번호에 실린 전자물리학과 정창욱 교수까지. 사실 지난 학기 학술인터뷰를 처음 했을 때 ‘다신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술면은 기자에게 이른바 ‘심각한 뎀봉’을 안겨줬다. 학술인터뷰를 하면서 난생처음 논문을 읽어봤으며 그 내용이 생소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과도한 타기도 했다. ‘이 분야에 문외한인 내가 엄청나게 훌륭한 업적을 갖고 계신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두시간 듣고 학술기사를 쓸 수 있을까’, ‘모든 자료가 영원히 보관될 수 있는 현대시대에 혹시라도 이 멋진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잘못 전달하게 돼 흠이 되진 않을까’, ‘인터뷰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신문이 나오기 전까진, 교수님의 반응을 보기 전까진 마음을 쉽게 놓을 수가 없다.

특히 이번 인터뷰가 어려웠다. 고등학생 때부터 과학을 멀리한 기자는 인터뷰 때 ‘박막(thin film)’이라는 단어에 긴장했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고 할까. 기자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가. 정말 인터뷰이에게도, 독자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외대학보는 항상 기자에게 도전과제를 던져주는 것 같다. 당장 며칠 뒤가 마감일인데 이번 호 학술면을 맡은 기자가 이렇게 마냥 앉아서 기사가 구멍난 꼴을 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것이고 뭐가되든 어떻게 되든 해봐야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 전자물리학과 대학원생을 수소문했고 결국 두분을 컨택할 수 있었다. 한 분은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인도네시아에서 온 똑똑하고 성격 좋은 옥도리아씨다. 영어를 이용한 전문용어가 나오는 어려운 대화는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은 △박막 △박막을 입히는 과정의 시뮬레이션 △박막을 만드는 3D 짜리 PLD기계를 보여줬다. 또한 박막을 입히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전화하라는 말에 감동했다. 그 후 지인이 소개해 준 전자물리학과 대학원생 김덕현씨의 도움을 받았다.

두 시간정도의 대화 끝에 기자는 물리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수영을 배우기 전 물이 무서워 수영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기자가 물속에서 숨 쉬는 방법만 알았을 뿐인데 물놀이가 좋아졌다는 느낌이라고 설명해야 할까. 과학서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과학의 혜택만 누리고 있던 기자가 이제는 그 원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번 학술면에 실린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 취재로 알게 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우리학교 인쇄복사기의 터치스크린과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의 차이가 그것이다. 인쇄복사기의 터치스크린은 신체가 아닌 일반볼펜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의 터치패드는 그렇지 않다. 또 인쇄복사기의 터치스크린은 한 문자만 눌렀는데도 다른 것까지 동시에 눌러지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어떤 점이 이 둘의 차이일까. 궁금해하신가. 자, 이제 당신이 도전해 볼 차례다.

동문의 소리



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강수산(강영 87)

현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재외국민선거. 재외선거 실시가 확정되었을 때 해외교민들이 많은 기대와 환호를 하였던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투표관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선거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와 선거사범 수사에 대비하여 주요 5개국에 검사 5명이 파견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검사들 사이에서는 누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지 관심이 모아졌었다. ‘그런 행운이 나한테까지 올까’하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시드니 총영사관 파견검사로 선정되었고, 이로써 첫 여자 공안검사, 첫 특검 파견 여검사에 이어 재외공관 파견 첫 여검사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동료검사들의 부러움 속에 출국한 시드니에서의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지

외대 동문으로 살아가는 것

낸 시간이었다. 선거업무 뿐 아니라, 외교부 정부·경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호주 주정부와 공동으로 비즈니스 포럼준비, 국경일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외빈을 맞이하는 외교관 역할, 호주를 방문하는 공무원들의 기관 방문 시 통역과 가이드 지원 등 다양한 경험을 했던 1년이었다.

그렇게 업무로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외대 동문 선배님으로부터 동문회 초청 이메일을 받게 되었다. 대선이 끝난 이후 처음 씬 동문 선배님들과의 저녁식사 자리는 유쾌하고 즐거운 자리였다.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 가 보이는 근사한 식당에서 동문후배라는 점만으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신 선배님들. 시드니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연말에 대학 동창들과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다 동문 선배님들 덕분에 시드니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자,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동창도 자신도 사업 초기에 동문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서 해외에 나오니 정말로 ‘세계 속의 외대’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러 나라에 있는 동창들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 외대동문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뿌듯했다.

혼자 출국한 호주였지만 가족같이 자상하게 대해주신 동문 선배님들 덕분에 시드니 생활이 외롭지 않았던 것 같다.

귀국 무렵 난 호주의 한국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작업을 했다. 유학생과 교민들을 위해 만든 위 사례집은 외교부에서 2천부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위 사례집으로 인해 시드니 한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연합뉴스에서는 나의 귀국기사와 함께 좋은 홍보 기사를 게재해 주었다.

검찰에서 외대는 아직 소수이지만, 소수정예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동문들의 활약은 대단하다. 그리고 나는 검사생활 13년 중 대부분을 동문 선후배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행운을 누렸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각료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자연스레 각료들의 프로필에 눈이 가게 되고, 외대 출신이라는 점을 발견할 때면 아무 이해관계 없이도 반갑고 기쁘다. 사회에 진출하여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요즘은 절실히 깨닫는다. 어찌보면 외대의 위상은 외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성적보다 외대를 졸업한 동문들의 활약상과 더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일시 정지

동박 라운드 시-땅!



▲이번 달 13(수)일 동아리박람회에서는 복싱 동아리 사람들이 야외 복싱을 하고 있다. 동아리 홍보를 위해 시작한 경기였을 테지만, 하다가 완전히 몰입해버린 이들. 어느새 교정이 링처럼 느껴진다.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지난호를 말하다 | 우지원(영어·영통 10)

내공 쌓는 대학생할

학문의 전당이었던 대학이 ‘취업스펙 쌓기’에 밀려 점점 그 본연의 기능을 잃어간다는 우려가 많다. ‘외대 학술대전’은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이 점점 ‘취업사관학교’로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좋은 귀감이 되어 주었다. 관심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여 소기의 학문적 성과를 거둔 학우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영국 경제신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국내 한 여학원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국내 교육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교 수업자료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본 기획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은 비싼 원서 등을 사기가 부담스러워 필요한 부분만 제본해 쓰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저작권을 100% 존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불법복제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경신 중위 인터뷰였다. ‘레미제라블’을 패러디한 ‘데 밀리터블’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그 영상의 제작자가 우리 학교 졸업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유명한 분을 인터뷰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전공 실력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쳐가고 있는 이런 ‘숨은 보석’과 같은 분을 소개하는 것이 더욱 참신한 기획일 것이다.

그리고 ‘국제’ 지면에서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은 것은 좋았지만,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생존기’라는 부제를 붙인 것은 조금 아쉬웠다. ‘생존’이라는 단어에 한국이 매우 살아가기 힘든 나라라는 전제가 깔린 느낌이다. ‘한국 생활기’ 등으로 부제를 달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957호는 신선한 기사아이템이 많이 보여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구성이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내공 쌓기’라는 김경신 중위의 말처럼, 각자의 분야에서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학우들을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더불어, 앞으로도 탄탄한 내공을 자랑하는 외대학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호를 말하다 | 김주영(인문·언어인지 12)

외대학보, 중립적 시각을 지켜주기를

필자가 먼저 지난호에서 비평하는 부분은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보궐선거에 관한 기사다. 그 기사에서는 선거가 무산 된 이유에 대한 표면적인 내용과 후보가 받은 주의, 경고의 횡수와 같이 학생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연이어 선거가 무산됐다는 점이다. 선거가 무산될 수 밖에 없던 이유와 앞으로 선거의 보완점에 대한 더욱 자세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선거참여 여부와 참여, 불참여의 명확한 이유를 짚어내 선거무산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다. 연이은 총학생회 선거의 무산은 학생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연스레 유권자의식 또한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양 배움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록 공개에 대한 기사를 지적하려 한다. 이 기사는 중운위 회의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사는 이유와 중운위의 입장이 빠진 채 글로벌배움터의 중운위 참관을 거절 받았다고 해 중립적 자세가 부족해 보인다. 또한 서울배움터 회의록이 현재 작성되지 않고 녹취까지 돼있지 않다면 학생의 회의 참관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비대위 회의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아쉽다.

내용에 대한 판단, 관심의 환기를 일으키는 기사에 있어서 기자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중립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모두 서술해야 한다. 언론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독자들의 입장 또한 바뀔 수 있다 여겨지기 때문이다. 외대학보의 ‘지난호를 말하다’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바른 토론문화와 비판의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독자위원회

서울 배움터

김미소(서양어·프랑스어 10)

신민식(법·법 06)

우지원(영어·영통 10)

글로벌 배움터

김경환(국제지역·러시아 13)

김주영(인문·언어인지 12)

이태준(자연·생명공학 09)

독자위원회는 모집과 선발을 거쳐 각 배움터별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학기동안 매호 학보가 발행된 뒤 학보를 비평합니다.



비둘기 칠판

비둘기칩판 보내는 곳
86cosmos@hufs.ac.kr

서울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박재형(동양어 · 태국어 12)

재형아, 안녕? 나 숙경이야. 네가 이제 곧 군대를 가게 되었잖아. 가기 전에 학보에 편지도 쓰고 좋은 추억 남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봤어. 내가 사진부 활동을 시작한 게 바로 옛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간 것 같아. 그동안 출사도 몇 번 나가고, 제주도에서 장기 촬영도 하고, 신인전도 열었네. 그래도 같은 동네 산다고 뒤편이 날에는 네가 많이 데려다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네가 군대를 간다니 왠지 슬퍼. 그동안 동기들 이랑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을텐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자주 만나고 동기애틀도 빨리 가고 좋은 추억 쌓자. 박재형 파이팅!! 앵 포~!!

▲ 받는 이 박재형

From, 윤숙경(중국 · 중국 12)

글로벌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산업경영공학과 졸업프로젝트

6조 길(조) 김태완 09 지유정 09 김희수 10 박현서 10

팀워크 최강인 우리 길조!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지금은 참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잘 지내고 있는 거 같아 너무 좋다. 배려심 많은 태완오빠, 우리의 리더로써 갖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유정언니, 먹방 현서, 먹보 희수까지. 다행히 성격이 모두 잘 맞고 각자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해내고 있는 모습에 우리의 미래가 밝은 거 같아. 방학동안 이 졸업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제안을 통과했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면 최종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

이 생긴다. 6월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자! 우리의 장밋빛 미래를 위하여.

From, 김다영 (공과 · 산업경영 09)

▲ 받는 이 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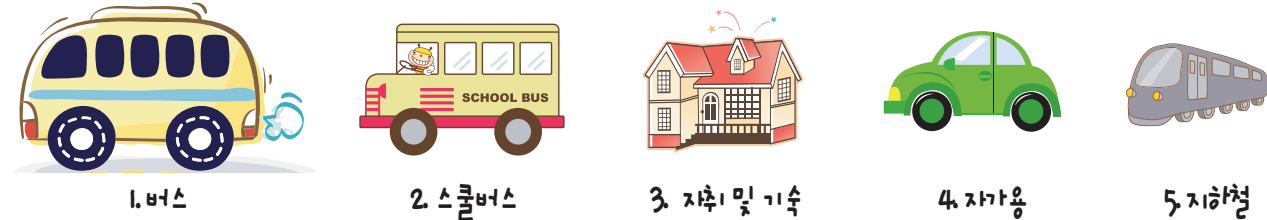
외대공감-스티커를 붙여라!

외대공감에서는 이번 달 13일(수)에서 20일(수)까지 일주일 동안 <당신의 통학방법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배움터는 국제학사 1층과 인문관 학생식당에서 글로벌배움터는 승차장계시판을 통해 우리학교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배움터



- 글로벌배움터



다음 주제는 <불나들이>입니다. 4월 1일(월)부터 8일(월)까지 양 배움터 같은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외대학보 87기 수습기자 합격을 축하합니다

서울배움터

김재훈(동양어 · 마인어 12)
서보윤(영어 · 영어학 13)
이영호(서양어 · 독일어 13)
임수진(일본 · 일본 13)
정가림(영어 · 영문 12)
주희진(영어 · 영문 12)

글로벌배움터

김민지(통번역 · 이탈리아어 12)
최소영(통번역 · 스페인어 13)
허규범(통번역 · 태국어 13)

면

박준서(통번역 · 중국어 12)

사설

우수 신입생 모집으로 학교발전 이끌어주길

우리 학교의 LD(Language & Diplomacy)학부 신설 소식에 학생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LD학부의 설립 취지는 고급 외교관, 고위 공직자 양성을 위해 외교 분야 실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국립외교원 입학에 도움을 줌으로써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재학 기간 장학금을 포함해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대학들은 우수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건다. 심화된 학벌주의와 사설 입시 기관 배치표로 대표되는 서열화로 인해 대학은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국한의 어려움에 놓여있다. 3월 27일 연합뉴스는 우리 학교의 LD학부 설립 소식과 함께 연세대의 융합학부 신설, 성균관대의 글로벌리더학부 설립(2012년), 중앙대의 공공인재학부 설립(2010년) 등을 기사화하였다. 이들은 달라도 과격적 혜택을 내걸고 우수 신입생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학의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우수 신입생 모집에 대학의 존망이 달려있으니,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것은 당연하다.

LD학부의 전망은 매우 밝다. 우리 학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사회적 요구가 큰 분야를 특화시킨 것이 LD학부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45개 언어를 가르치는 국내 최고의 글로벌 인재 양성 기관으로 그 동안 많은 외교관을 배출하였다. 게다가 LD학부 신설 계획에 따르면, 외교부나 국제기구 공직자 출신 교수진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외교에 특화된 최고급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게다가 학생들은 재학 중 반드시 국립외교원 입학시험이나 국가고시에 응시해야 하니 속된말로 '빡센 교육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20년 전, 대학 등록금이 지금의 반값 수준이었던 1990년대에는 교실에 칠판만 있으면 대학이 운영되고, 대학문만 열어놓으면 신입생들이 몰려왔다. 하지만 요즘의 대학은 다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첨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학의 존망이 위협받는다. 거기에 더해 공공요금과 모든 물가가 올라도 대학 등록금은 2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펼쳐지는 대학들의 진검승부에서 LD학부가 우리 학교의 도약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만 한다.

살아있는 학보를 위해

학보 발행 뒤 기자들은 양 배움터 각 건물에 설치된 가판대를 돌며 어느 정도 학보가 읽히고 있는지를 파악하곤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가판대 위에 놓인 학보의 양이 얼마만큼 줄어드는 지를 살펴본다. 눈에 뵈는 만큼 학원한 학생들이 많이 집어가 줄어드는 차이를 보이는 가판대가 있는 반면 오늘 발행된 신문처럼 부수의 양이 전혀 차도가 없는 가판대도 존재한다. 잠시 눈을 돌려 옆에 가판대도 없이 바닥에 비치된 캠퍼스용 C잡지를 바라본다. 놓여진지 몇 분 만에 그 자취를 감출 만큼 학생들의 선호도와 인기가 느껴진다. 이에 반해 쌓여있는 학보들은 학생들의 손길이 학내언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때문에 이번호에서는 대학신문의 나아갈 방향을 타대 학내 언론사 편집장과 우리학교 교수의 가상간담회로 꾸몄다. 대학언론의 위기라는 말은 너무 오래됐으며 그 오래된 문제의 가장 기본에는 학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에 있다. 어쩌면 진부하지만 현 언론사가 처한 현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갔다. 위기의 비책은 정보 과포화 속에 대학언론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가 추구하는 살아남기 전략도 비슷하다. 읽어야만 하는 이유, 눈에 띄는 소재도 물론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은 소통에 있다. 외대인이 있기에 외대학보가 존재한다. 오늘도 본지를 읽는 독자 외대인과 함께 외대학보는 생존해 있다. 이에 외대학보는 앞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를 하며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 한다.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는 독자위원회를 통해 피드백을 지면에 게재될 글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결식을 관련 기획보도는 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자'는 취지하에 끼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와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와 함께 외대인을 향해 다가갈 것이다. 외대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외대학보도 함께 살아있다.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문나운 부장 홍규원

차장 신민지 양재상 이민정 이은결 임채윤

조교 이현주 정진경

제작 (주)경보기획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facebook /newhufspress

외대학보 기사에 실릴 인터뷰이를 모집합니다.

기사(예코프로젝트)와(로스쿨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로스쿨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인터뷰이로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분들은 외대학보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newhufspress>)계정으로 참여신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책은 모국에 보내는 러브레터

제천에서 김진명 작가가 쓰는 한국을 만나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 김진명.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제천을 방문했다. 제천에 도착할 무렵 김진명 작가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마침 의림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며 흔쾌히 12시쯤 작업실이 위치한 세명대학교 입구에서 만날 약속을 잡아줬다. 제천이 처음이라 한참을 헤매다 산으로 가고 있던 도중 김진명 작가가 자동차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찾아왔다.

“학교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인 산으로 가고 있었군요.”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던 김진명 작가의 차안에는 등산복 외투가 걸려있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여느 아버지들과 같이 산을 좋아하는 느낌을 물씬 풍겼다.

이윽고 도착한 그의 작업실에는 정원(靜園)이라는 호가 쓰여 있는 한국수묵화 작품이 여러 점 걸려있었다. “제 집사람이 그린 거예요. 고요할 정(靜)에 정원(園), 제가 지어준 호입니다” 고향이 부산이라는 작가는 서울에서 살다가 아내의 일을 따라 90년대에 제천으로 왔다고 한다. 김진명 작가는 우리에게 뜨겁지 않게 종이집 두개를 걸쳐 커피를 내어줬고 그렇게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Q. 작가님은 학생시절 엄청난 독서광이라고 들었습니다. 손에서 책을 떼놓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저는 학창시절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많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주변사람들이 그 의문을 해결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책을 읽게 됐죠.

Q. 우리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셨는데, 법학은 작가님의 근원적인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었나요?

A. 법학이 철학의 좀 더 엄격한 단계라고 생각해서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 들어와 보니 법학과라는 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내가 품었던 의문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죠. 근원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철학과로의 전과를 생각은 했지만 실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법학과 학생이었음에도 법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하나도 몰라요. 1,2학년 때는 주구장창 책만 읽었답니다.

Q. 대학 졸업후 작가님은 어떤 길을 걸어오신 건가요?

A.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사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졸업 후 취직해서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니다. 오랫동안 독서를 했고 세상에 대해 나름대로 확고한 인생관이 있었기 때문에 돈벌이에 함부로 몸을 담기가 싫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사는 것을 마냥 관찰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Q.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A.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실패해서 제가 집안을 일으켜야 했어요. 저는 사업자 외국을 자주 다녔고 외국사회와 외국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군사정권 때였어요. 힘있는 자들의 독단과 힘없는 사람들의 신음과 절규만이 들리는, 어떠한 의사참여도 할 수 없었던 팍 막힌 사회였죠. 이때부터 돈벌이만 해선 안될 것 같았고 ‘잘못된 사회를 깨우치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였어요. 1990년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

하고 북한을 폭격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반대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나 의견들이 무수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하나도 안 나오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남북이 합작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소설<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쓰게 된 거죠.

Q. 작가님의 소설은 역사지식과 과학지식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대외적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있게 하기 위해 한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설에 역사지식을 담게 됐어요. 또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자면, 현재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과학계는 잘 대접받고 있다고 보기 힘들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봐도 이공계 공부를 한 주석이 많은데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는 대부분 인문계가 주를잡고 있죠. 저는 제 소설에 과학지식을 담아서 과학계가 발전해야 된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Q. 작품을 쓰실 때 역사적으로 치밀하고 세심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자료들을 책이나 논문만으로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심층적으로 따로 조사를 하시나요?

A.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조사를 하죠. 유신체제를 소재로 한 <1026>의 예를 들어볼게요. 수없이 많은 기자와 필자들이 1026사태에 대해 글을 썼지만,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었거나 근거없는 상상력에 불과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국이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했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측을 깊게 조사했어요. 그렇게 기존에 있는 견해로 부족한 경우 제가 직접 깊숙이 취재를 하죠.

Q. 소설<1026> 취재 에피소드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세요.

A. 소설<1026>을 쓰기 위해서는 CIA가 갖고있는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CIA는 재직중에 얻은 비밀을 유출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을 알아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한 CIA라는 요원이 1026사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그 요원에게

“나는 한국의 쌀장수다. 한국의 쌀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캘리포니아의 쌀은 무지하게 싸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쌀을 수입해 한국에 팔면 우리는 거부가 된다. 사업을 같이 하자”라며 접근했어요. 그리고 집요한 노력 끝에 결국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Q. 지금 <고구려> 5권을 집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고구려> 집필 후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A. <고구려>를 13권까지 쓰고 전국민 <고구려> 읽기 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에 대해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인들은 고구려 땅이 중국에 있었고, 고구려 사람들도 중국인이라고 주장하죠. 중국인에게 고구려가 우리 것이라고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사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고구려가 우리 것이다’라는 것 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구려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이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끌어당기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도 중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 마디 해주세요.

A. 젊을 때는 늘 불안하죠. 젊음의 본질은 불안이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졸업 후에는 무엇을 할지, 앞길에 캄캄하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오로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시시콜콜한 것에도 풍랑 속에 뒹매쳐릴 휘돌리고 떠다닙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으면 아무리 캄캄한 세상도 밝은 빛이 비치는 멋진 세상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잔인한 독서를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서울 정도로 스스로를 내팽개치고 책으로 들어가 보세요.

작업실에서의 이야기가 끝난후 김진명 작가는 단골집이라며 제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한 찜국수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찜국수와 감자떡을 먹으며 우리는 담소를 나눴고 그의 소박한 분위기에 물들었다. 점심식사 후 김진명 작가는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며 의림지를 소개했고 서로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아귀 힘은 조금은 약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김진명 작가의 저서소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남한의 핵 보유라는 색다른 소재로 남북한을 비롯해 주변 열강들과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그린 김진명 작가의 첫 번째 소설
<1026> :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사건을 다룬 소설
<고구려> : 고구려 역사 중 가장 극적인 시대로 손꼽히는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대왕 △장수왕까지 여섯 왕의 이야기를 다루며 현재 4권까지 출판.